

주요 노동동향

● 생산 및 물가 동향

◆ 2022년 6월 생산은 전월대비 0.6% 증가(전년동월대비 2.1% 증가)

- 전산업 생산은 서비스업, 건설업에서 생산이 줄었으나, 광공업, 공공행정에서 생산이 늘어 전월대비 0.6% 증가함.
 - － 전년동월대비로는 서비스업, 광공업, 건설업 등에서 생산이 늘어 2.1% 증가함.
- 제조업 생산은 전자부품, 화학제품 등에서 줄었으나, 반도체, 자동차 등에서 늘어 전월대비 1.8% 증가함(전년동월대비 +1.4%).
- 서비스업 생산은 금융·보험 등에서 늘었으나, 도소매, 교육 등에서 줄어 전월대비 0.3% 감소함(전년동월대비 +3.9%).

◆ 2022년 6월 소비는 전월대비 0.9% 감소, 설비투자는 전월대비 4.1% 증가

- 소매판매액지수는 승용차 등 내구재(-2.3%), 오락·취미 및 경기용품 등 준내구재(-0.9%),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0.3%) 판매가 모두 줄어 전월대비 0.9% 감소함(전년동월대비 -1.5%).
- 설비투자는 선박 등 운송장비(-2.7%) 투자가 줄었으나,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6.6%) 투자가 늘어 전월대비 4.1% 증가함(전년동월대비 -0.7%).
- 건설기성(불변)은 전월대비 2.0% 감소, 건설수주(경상)는 전월대비 7.0% 증가함.

〈표 1〉 최근 경제일반 동향

(단위 : %, 전기(월)대비, () 안은 전년동월대비)

		연간			분기				분기				월		
		2019	2020	2021	2020				2021				2021	2022	
					1/4	2/4	3/4	4/4	1/4	2/4	3/4	4/4	6월	5월p	6월p
생산	전산업	1.0	-1.1	4.9	-1.5	-2.9	2.9	1.3	1.7	0.6	0.9	1.5	1.8	0.8(7.1)	0.6(2.1)
	광공업	0.4	-0.3	7.4	-0.5	-6.0	5.7	2.6	3.7	-0.6	1.0	1.1	1.4	0.2(7.4)	1.9(1.4)
	제조업	0.5	-0.2	7.6	-0.5	-6.4	6.2	2.5	3.9	-0.7	0.9	1.3	1.5	0.1(7.8)	1.8(1.4)
	건설업	-2.3	-2.1	-6.7	1.7	-2.3	-2.5	1.3	-5.2	-1.9	-1.1	4.1	-0.9	6.5(8.7)	-2.0(1.8)
	서비스업	1.4	-2.0	4.4	-2.9	-1.5	2.2	0.9	0.6	1.7	1.1	1.5	1.6	1.0(7.3)	-0.3(3.9)
소비	소비재 판매	2.4	-0.2	5.9	-5.9	5.3	-0.4	1.1	1.7	2.2	0.8	1.1	0.7	-0.2(0.7)	-0.9(-1.5)
투자	설비투자	-5.6	5.9	9.6	-2.0	2.5	2.9	1.4	6.0	0.7	-0.8	-0.2	1.4	12.8(5.4)	4.1(-0.7)
물가		0.4	0.5	2.5	0.3	-0.5	0.6	0.0	1.3	0.5	0.7	1.0	0.2	0.6(6.0)	0.5(6.3)

- 주 : 1) 광공업 생산은 광업(B), 제조업(C),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D)을 포함.
- 2)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 개정)상의 13개 대분류(도소매업(G), 운수 및 창고업(H), 숙박 및 음식점업(I), 정보통신업(J),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업(L),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N), 교육서비스업(P),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S), 수도·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E))를 포괄함.
- 3) 2019년 이후 전산업 연간수치는 농림어업을 제외한 수치임.
- 4) 물가상승률 월별 자료는 순서대로 2021년 7월, 2022년 6월, 2022년 7월 기준임.
- 5) p는 잠정치임.
- 6) 생산, 소비, 투자의 분기 및 월 수치는 계절조정계열 전기(월)대비, 연간 수치는 원계열 전년대비임.
- 7) () 안은 원계열 전년동월대비임.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소비자물가동향』, 각호.

◆ 2022년 7월 소비자물가지수 전월대비 0.5% 상승(생활물가지수 전월대비 0.4%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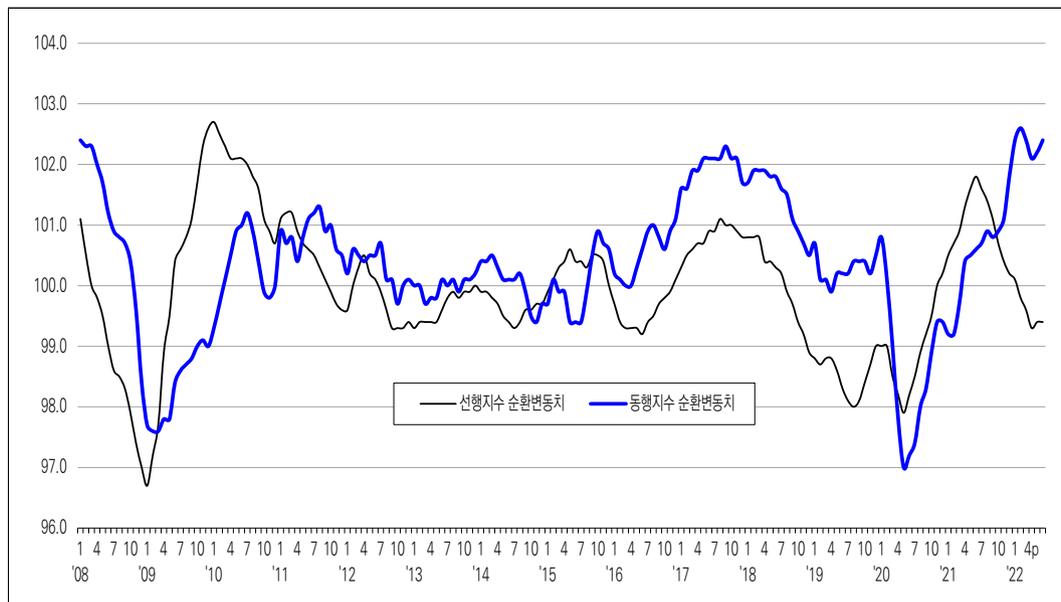
○ 2022년 7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8.74(2020=100)로 전월대비 0.5% 상승함(전년동월대비 6.3% 상승).

- 소비자물가지수의 지출목적별 동향을 보면, 전월대비 식료품·비주류음료(1.5%), 음식·숙박(1.0%), 오락·문화(0.6%), 가정용품·가사서비스(0.6%), 기타 상품·서비스(0.4%), 교통(0.1%), 의류·신발(0.1%), 교육(0.1%), 주류·담배(0.1%)는 상승, 통신, 보건, 주택·수도·전기·연료는 변동 없음.
- 생활물가지수는 식품은 전월대비 1.3% 상승, 식품 이외는 전월대비 0.1% 하락하여 전월대비 0.4% 상승함.

◆ 2022년 6월 동행종합지수 전월대비 0.3% 증가, 선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0.3% 증가

-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2p 상승함.
-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보합

[그림 1]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 ·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2015=100)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경기종합지수』, KOSIS.

(이기쁨,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

● 고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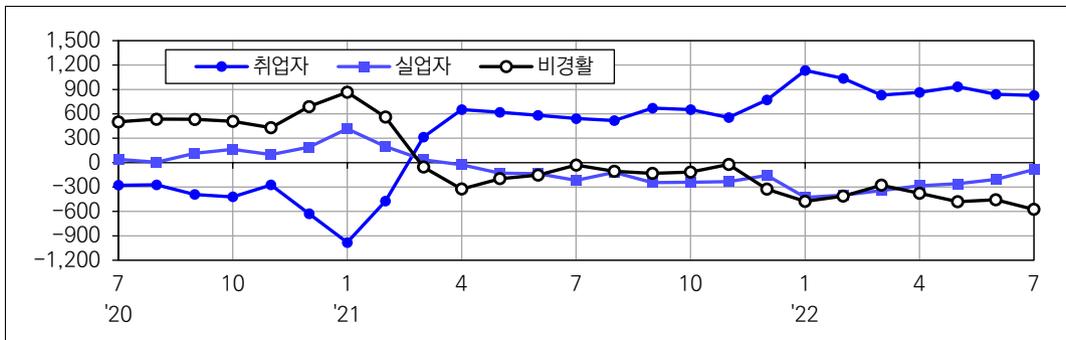
◆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증가폭 축소, 전월대비 취업자 수 증가

○ 2022년 7월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82만 6천 명 증가하여 증가폭이 축소됨(전월대비¹⁾ 1만 9천 명 증가).

- (산업별) 7월 제조업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증가폭이 확대되고 건설업은 증가폭이 축소됨. 서비스업은 숙박음식, 정보통신 및 전문과학기술 등에서 취업자 증가폭이 확대되고 보건복지 및 운수창고 등에서 증가폭이 축소됨.
- (연령별) 7월은 30대에서 전년동월대비 증가폭이 확대됨. 30대는 제조업, 정보통신 및 전문과학기술에서 증가폭이 확대됨. 20대와 50대는 취업자 증가폭이 축소됨. 20대는 교육 및 보건복지 등에서 증가폭이 축소되고 50대는 제조업 및 건설업에서 증가폭이 축소됨.
- (종사상 지위별) 7월 임금근로자 증감은 전년동월대비 큰 변동이 없는 반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농림어업 및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축소되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농림어업, 협회단체, 교육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확대됨.
- (일시휴직자) 7월 일시휴직자는 전년동월대비 6만 9천 명 감소하여 감소폭이 확대(6월 -1만 9천 명)됨. 전월대비로는 2만 5천 명 감소함.
- (실업자) 7월 실업자는 전년동월대비 8만 4천 명 감소하여 감소폭이 축소(6월 -20만 5천 명)됨. 전월대비로는 2만 명 증가함.

[그림 1] 취업자, 실업자, 비경황 증감 현황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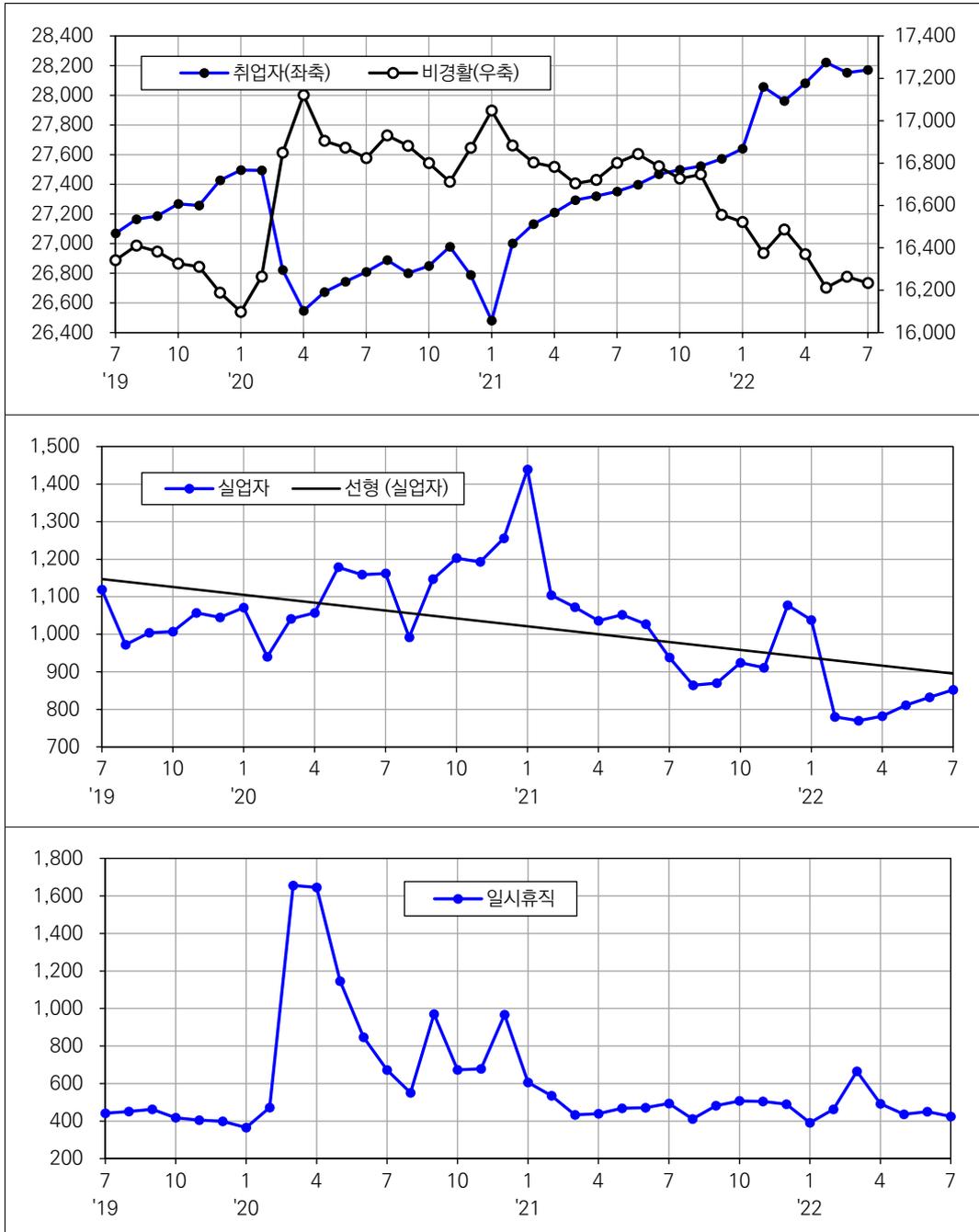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 본고에서 전월대비 수치는 통계청 계절조정계열 자료를 활용함.

[그림 2] 계절조정 취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실업자, 일시휴직자 변화

(단위 : 천 명)



주 : 일시휴직자는 X-12 ARIMA를 이용하여 계절조정계열을 산출하였음.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2022년 7월 전년동월대비 취업자는 30대에서 증가폭이 확대됨. 20대와 50대는 취업자 증가폭이 축소되고 실업자 감소폭도 축소됨.

- 전년동월대비 20대 취업자는 도소매에서 감소 전환되고 음식숙박에서 증가폭이 확대됨. 운수창고, 교육, 보건복지 및 예술여가에서는 증가폭이 축소됨. 30대는 제조업, 정보통신 및 전문과학기술에서 증가폭이 확대됨. 50대는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증가폭이 축소됨.

〈표 1〉 연령별 취업자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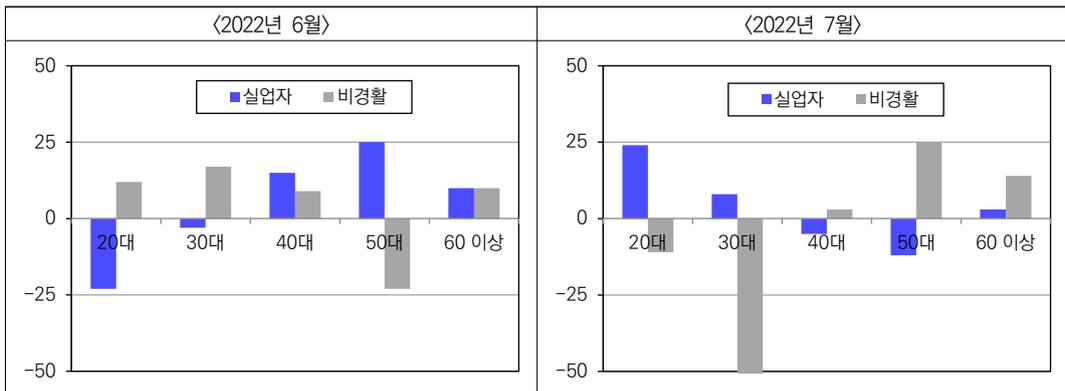
(단위 : 천 명, %, 전년동월대비, () 안은 계절조정계열 전월대비)

	15~19세				20대				30대			
	5월	6월	7월	(전월비)	5월	6월	7월	(전월비)	5월	6월	7월	(전월비)
취업자	11	-12	-4	(-1)	185	117	95	(-33)	6	18	62	(38)
실업자	-8	-14	0	(8)	-74	-72	-13	(24)	-4	3	6	(8)
비경황	-78	-41	-59	(-6)	-241	-193	-239	(-11)	-132	-151	-194	(-51)
실업률	-3.6	-5.8	0.2	(3.9)	-2.0	-1.8	-0.5	(0.6)	-0.1	0.1	0.0	(0.1)
고용률	0.8	-0.3	0.0	(0.0)	4.1	3.2	2.9	(-0.4)	1.5	1.7	2.2	(0.6)
	40대				50대				60세 이상			
	5월	6월	7월	(전월비)	5월	6월	7월	(전월비)	5월	6월	7월	(전월비)
취업자	36	2	-1	(-7)	239	245	194	(-14)	459	472	479	(27)
실업자	-47	-21	-9	(-5)	-75	-54	-38	(-12)	-51	-48	-31	(3)
비경황	-60	-51	-65	(3)	-120	-142	-113	(25)	150	122	95	(14)
실업률	-0.8	-0.3	-0.1	(-0.1)	-1.2	-0.9	-0.7	(-0.2)	-1.1	-0.9	-0.7	(0.0)
고용률	1.2	0.7	0.7	(0.0)	2.4	2.4	1.8	(-0.2)	1.6	1.7	1.8	(0.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3〉 연령별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증감 : 계절조정계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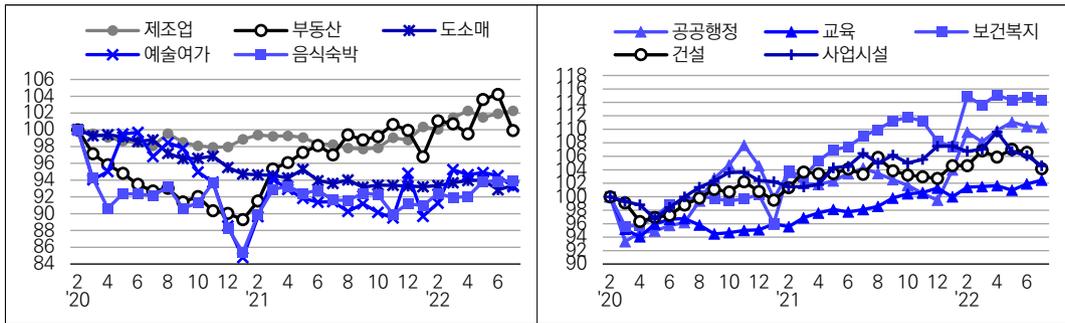
(단위 : 천 명, 전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전월대비) 산업별로는 부동산, 예술여가, 보건복지, 건설, 사업시설이 감소함. 음식숙박 및 공공행정은 정체된 반면 제조업, 도소매 및 교육은 개선됨.
- 부동산, 도소매, 예술여가, 음식숙박은 2020년 2월 수준 이하를 유지함.

[그림 4] 산업별 취업자 수 변화: 계절조정계열, 2020년 2월을 100으로 정규화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표 2>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

(단위: 천명, %)

	전년동월대비(원계열)			전월대비(계절조정계열)			3개월 전 대비(계절조정계열)	
	5월	6월	7월	5월	6월	7월	증감	증감률
농림어업	122	89	93	35	-21	9	23	1.5
광업	-1	-2	-3	-1	-2	-1	-4	-33.6
제조업	107	158	176	-34	19	15	0	0.0
전기·가스·증기	11	9	16	2	-2	6	7	8.5
수도·원료재생	-12	-25	-29	-1	-11	1	-11	-7.1
건설업	72	50	16	23	-9	-49	-35	-1.6
도매 및 소매업	-45	-37	-10	1	-41	18	-22	-0.6
운수 및 창고업	120	126	83	41	17	-15	43	2.6
숙박 및 음식점업	34	28	54	41	1	3	44	2.1
정보통신업	93	76	95	4	6	1	11	1.1
금융 및 보험업	-39	-59	-21	12	-11	24	25	3.3
부동산업	35	33	16	22	3	-24	2	0.4
전문·과학·기술	69	41	86	19	-2	29	46	3.7
사업시설관리지원	32	21	-25	-39	-8	-20	-67	-4.6
공공행정·사회보장	99	80	68	14	-7	-2	5	0.4
교육서비스업	55	79	84	-13	17	11	15	0.8
보건 및 사회복지	178	177	130	-20	11	-11	-20	-0.7
예술·스포츠·여가	16	16	9	1	-2	-7	-7	-1.5
협회·단체·수리·기타	4	-16	-23	24	-18	-1	6	0.5
가구 내 고용·자가소비	-13	-2	4	3	4	5	12	16.6
국제 및 외국기관	-1	0	4	1	0	3	4	31.3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종사상 지위별로 2022년 7월은 자영업자에서 전년동월대비 증가폭이 변동함.

- 상용직은 제조업 및 전문과학기술에서 증가폭이 확대, 보건복지 및 건설업 등에서는 증가폭이 축소됨. 임시직은 도소매에서 감소폭이 축소, 음식숙박에서 증가폭이 확대됨.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농림어업, 제조업 및 건설업에서 증가폭이 축소되고 도소매 및 협회단체에서 감소 전환됨.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농림어업, 협회단체, 교육서비스 및 정보통신에서 증가폭이 확대되고 음식숙박에서 감소폭이 확대됨.

〈표 3〉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수 증감

(단위: 천명, %)

	전년동월대비(원계열)			전월대비(계절조정계열)			3개월 전 대비(계절조정계열)	
	5월	6월	7월	5월	6월	7월	증감	증감률
상용직	900	899	895	36	8	80	124	0.8
임시직	79	-53	-52	63	-66	13	10	0.2
일용직	-91	-79	-77	14	-28	-26	-40	-3.4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65	121	78	10	34	-39	4	0.3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45	6	49	43	-9	34	68	1.6
무급가족종사자	-64	-53	-67	4	4	-18	-11	-1.1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표 4〉 종사상 지위별,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

(단위: 천명, 전년동월대비)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5월	6월	7월	5월	6월	7월	5월	6월	7월	5월	6월	7월	5월	6월	7월
농림어업	8	0	-1	14	14	5	-2	-2	-2	18	21	8	74	45	74
제조업	115	162	208	15	10	14	-2	-1	-14	18	27	19	-23	-26	-29
건설업	105	87	61	20	7	-2	-61	-41	-33	2	17	10	16	-6	-8
도소매	73	77	87	-32	-57	-22	-16	-1	-4	9	7	-4	-45	-34	-31
운수창고	47	46	20	19	27	8	-8	-9	-2	8	13	11	55	49	46
음식숙박	48	44	47	21	2	36	-28	-17	-10	-9	0	0	3	-9	-21
정보통신	88	71	92	3	-2	-12	-1	0	1	-1	1	1	3	5	12
금융보험	-35	-33	-7	0	-34	-20	0	2	2	0	3	3	-4	3	1
부동산	29	23	4	8	7	10	-2	-3	0	4	7	5	-5	0	-4
전문과학기술	87	67	105	-25	-35	-32	-1	-6	-3	3	8	9	7	10	9
사업관리지원	10	7	-20	12	9	1	4	-8	-20	3	6	9	-1	2	3
공공행정	97	96	100	0	-14	-32	3	-2	0	0	0	0	0	0	0
교육서비스	52	65	70	-1	-2	-9	2	1	1	-1	9	7	3	8	17
보건복지	138	152	120	32	25	3	4	3	2	3	-3	0	4	3	6
예술스포츠	2	11	-5	-3	-8	-9	3	5	1	1	0	3	16	13	16
협회단체	42	46	34	1	0	1	19	0	0	5	4	-4	-53	-57	-44
가구 내 고용	-1	0	0	-9	-4	-2	-3	2	5	0	0	0	-1	0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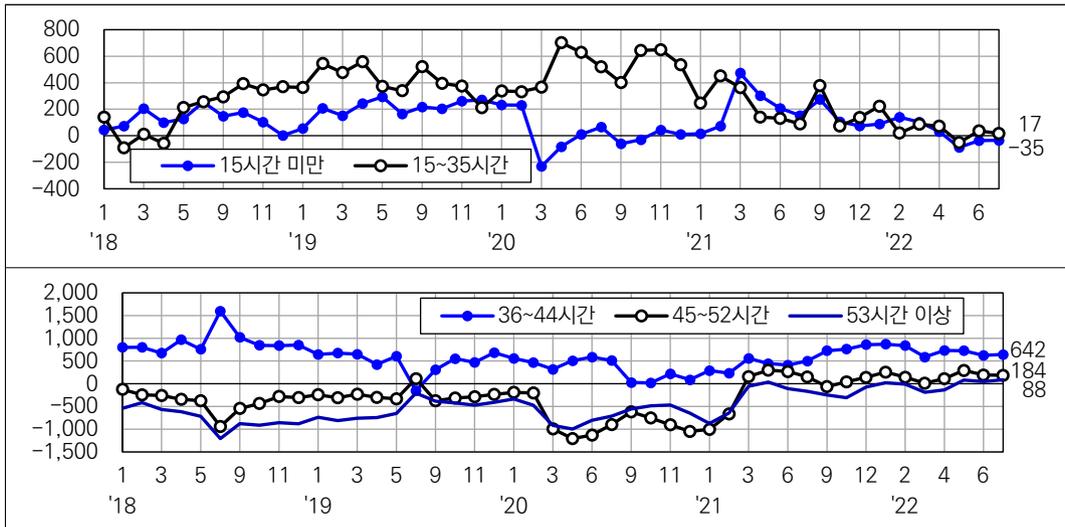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2022년 7월 평균 총근로시간은 39.6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0.3시간 증가함.

－ 36~44시간 근로자 비중은 증가하고 35시간 이하 및 일시휴직자 비중이 감소한 영향임.

[그림 5] 근로시간 집단별 취업자 수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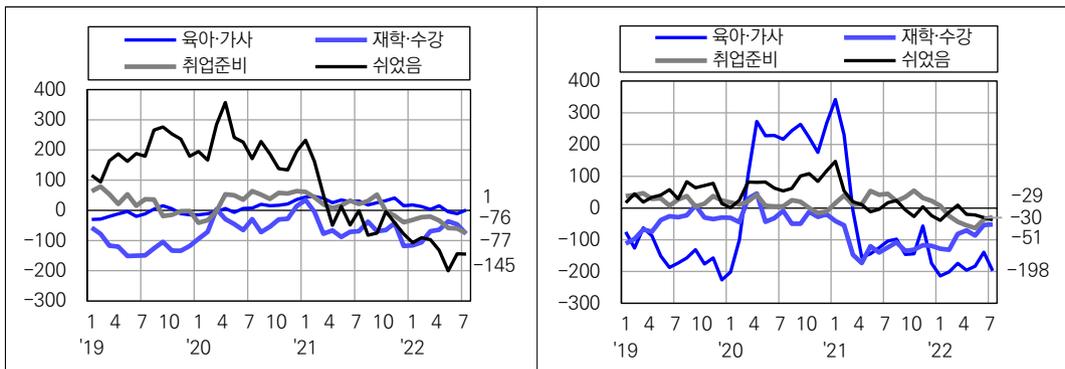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7월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월대비 -57만 5천 명으로 감소폭이 확대(6월 -45만 6천 명)됨.

－ 남성은 전년동월대비 -28만 8천 명으로 주로 재학·수강 및 취업준비에서 감소폭이 축소됨. 여성은 -28만 7천 명으로 육아·가사에서 감소폭이 축소됨.

[그림 6] 성별(남자: 좌, 여자: 우) 비경제활동인구 사유별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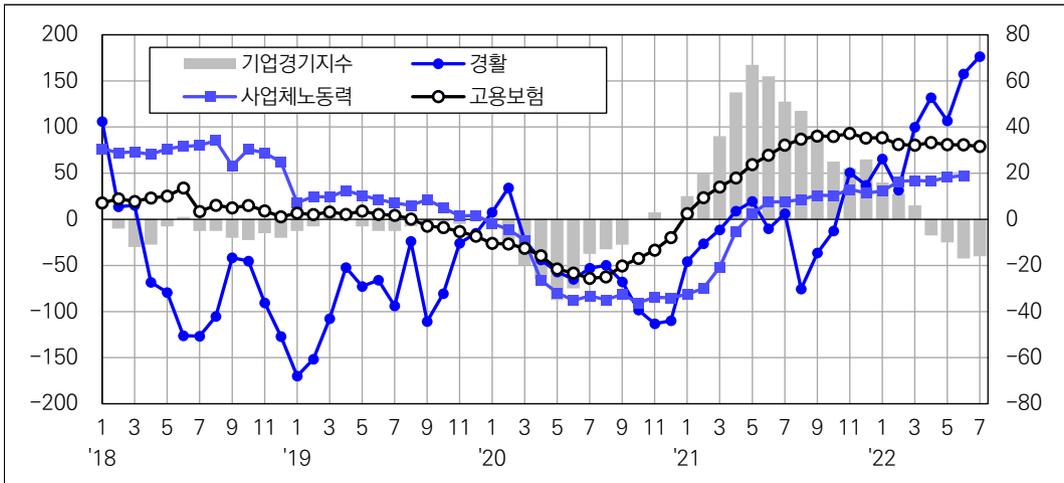
◆ 제조업 취업자 증가폭 확대 지속, 서비스업 취업자 증가폭 축소

○ 2022년 7월 제조업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7만 6천 명 증가하여 증가폭이 확대됨.

-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증가폭이 축소되는 추세임. 사업체노동력조사 종사자의 증가폭이 확대되는 추세임. 피보험자는 주로 식료품, 자동차 및 금속가공에서 증가폭이 축소됨.
- 경찰 계절조정계열 취업자는 전월대비 1만 5천 명 증가함.

[그림 7] 제조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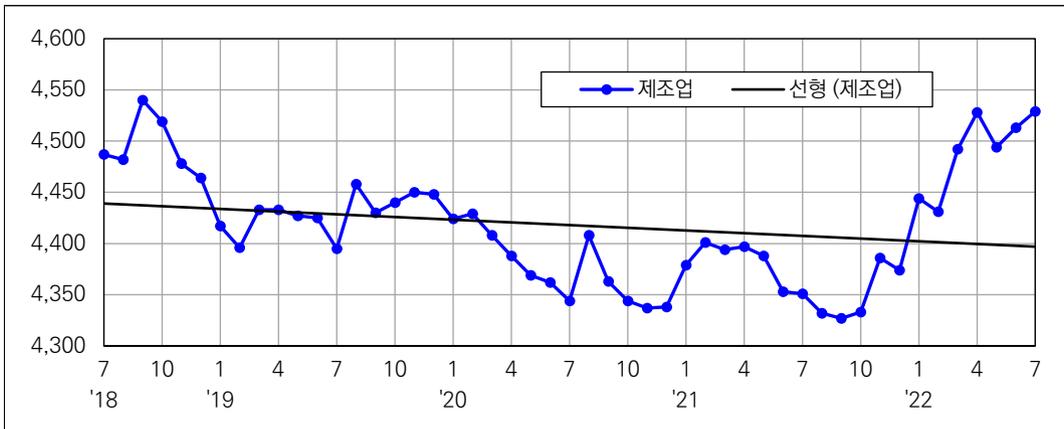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그림 8] 계절조정 제조업 취업자 수

(단위 :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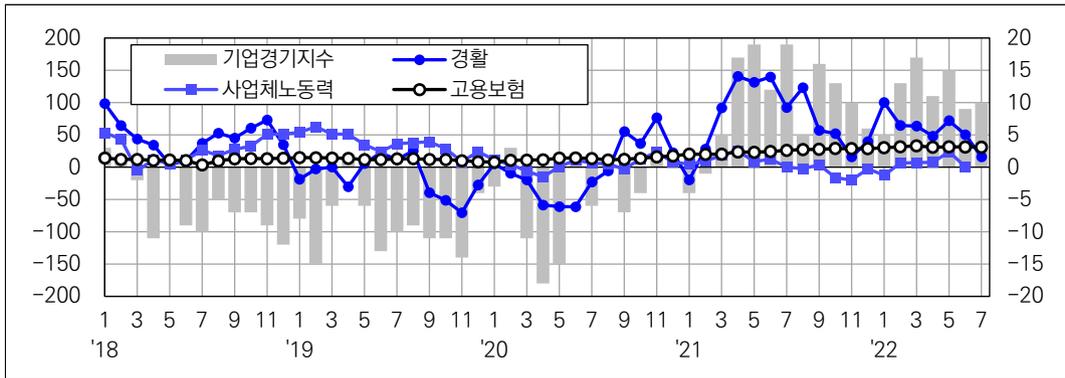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2022년 7월 건설업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만 6천 명 증가하여 증가폭이 축소됨.
 - 사업체노동력조사 종사자는 전년동월대비 1천 명 증가하여 증가폭이 크게 축소됨.

[그림 9] 건설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감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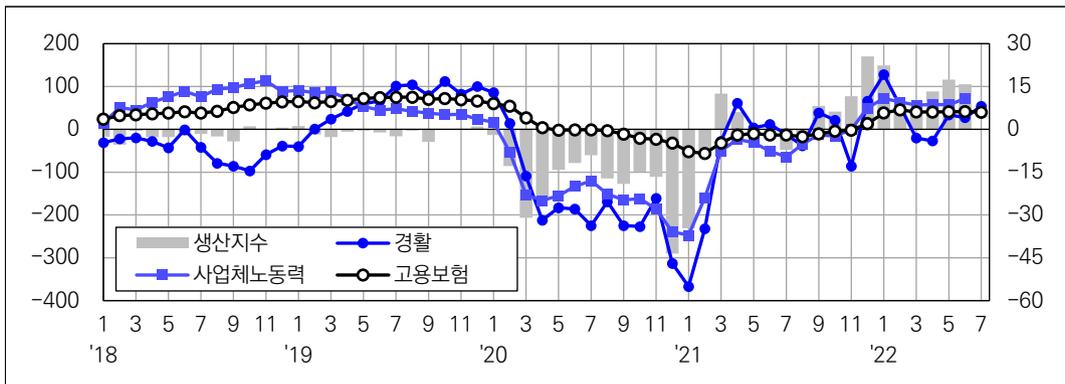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 2022년 7월 서비스업은 전년동월대비 52만 8천 명 증가하여 증가폭이 축소됨.
 - (숙박음식) 경찰 취업자 및 사업체노동력조사 종사자 증가폭이 확대됨. 생산지수도 증가세를 유지함.
 - (정보통신) 경찰 취업자 증가폭이 확대됨. 기업경기지수는 감소로 전환됨.
 - (전문과학기술) 경찰 취업자 증가폭이 확대됨. 기업경기지수도 증가 전환됨.
 - (보건복지) 모든 고용지표에서 증가폭이 축소되는 추세임. 생산지수는 증가세를 유지함.

[그림 10] 숙박 및 음식점업 고용 증감(좌) 및 생산지수(우)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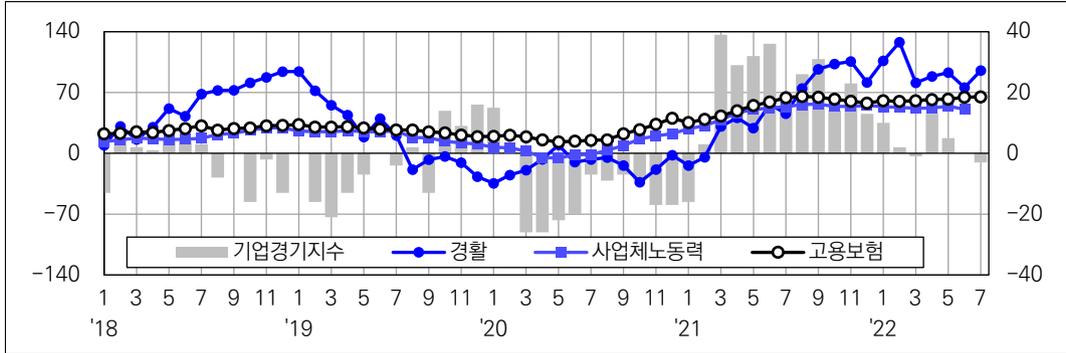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서비스업동향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그림 11] 정보통신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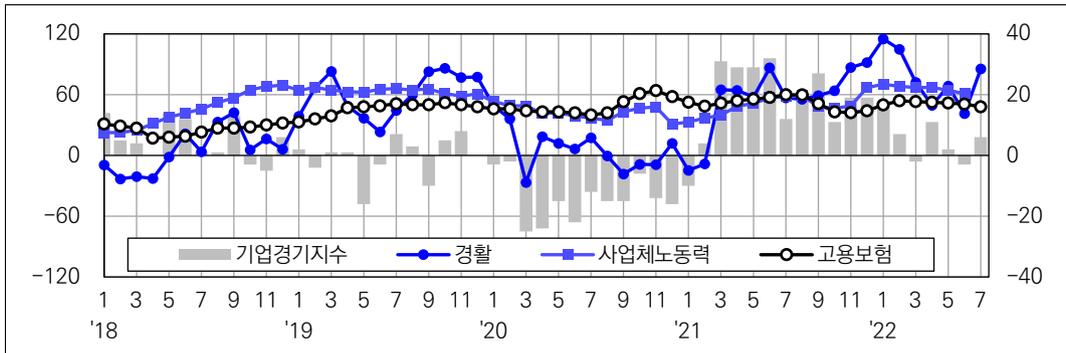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그림 1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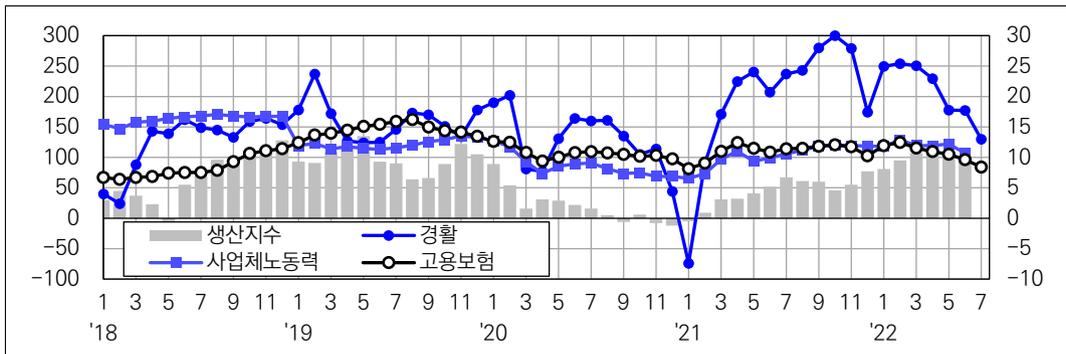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그림 1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고용 증감(좌) 및 생산지수(우) 증감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서비스업동향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

◆ 2022년 5월 명목임금은 전년동월대비 5.1% 증가

- 2022년 5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59만 2천 원(5.1%)임.
 - 2022년 5월 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378만 7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5.3% 증가, 비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174만 3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7% 증가함.
 - 상용근로자의 임금내역별로 보면 정액급여와 특별급여가 각각 4.4%, 21.3% 증가하면서 임금상승폭이 확대됨. 특히 상용근로자 특별급여는 제조업, 금융 및 보험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에서 특별급여 지급시기 변경 및 확대 등의 영향으로 임금상승폭이 확대됨.
 - ※ 초과급여 : 연장(야근근로 포함)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되는 급여
 - 특별급여 : 상여금, 성과급, 임금인상소급분, 학자금 등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특별한 급여
- 2022년 5월 소비자물가지수(2020=100.0)를 고려한 실질임금은 전년동월대비 0.3% 감소함.

〈표 1〉 임금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 천 원, %, 2020=100.0)

	2018	2019	2020	2021	2021		2022		
					1~5월	5월	1~5월	5월	
전체 근로자 임금총액	3,376 (5.3)	3,490 (3.4)	3,527 (1.1)	3,689 (4.6)	3,666 (4.0)	3,418 (4.0)	3,883 (5.9)	3,592 (5.1)	
상용 근로자	임금총액	3,592 (5.1)	3,702 (3.1)	3,719 (0.4)	3,893 (4.7)	3,863 (4.2)	4,105 (6.3)	3,787 (5.3)	
	정액급여	2,891 (4.6)	3,010 (4.1)	3,077 (2.2)	3,181 (3.4)	3,154 (3.0)	3,147 (3.6)	3,282 (4.4)	
	초과급여	197 (3.7)	202 (2.7)	200 (-0.9)	208 (3.7)	204 (3.8)	216 (10.4)	214 (5.1)	222 (2.6)
	특별급여	504 (8.5)	490 (-2.8)	441 (-9.9)	504 (14.3)	505 (12.2)	232 (7.2)	608 (20.4)	281 (21.3)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총액	1,428 (5.5)	1,517 (6.2)	1,636 (7.8)	1,700 (3.9)	1,681 (4.3)	1,698 (3.5)	1,731 (3.0)	1,743 (2.7)	
소비자물가지수	104.5 (1.5)	105.1 (0.4)	105.7 (0.5)	104.0 (2.5)	101.7 (1.9)	102.1 (2.6)	106.1 (4.3)	107.6 (5.4)	
실질임금증가율	3.7	3.0	0.5	2.0	2.1	1.3	1.5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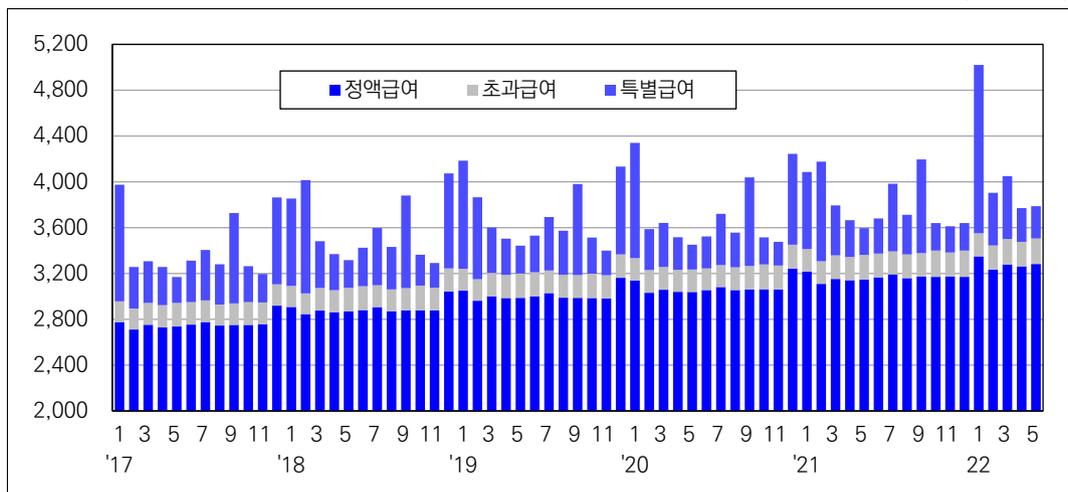
주 :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통계청, <https://kosis.kr/>

〈그림 1〉 상용근로자의 임금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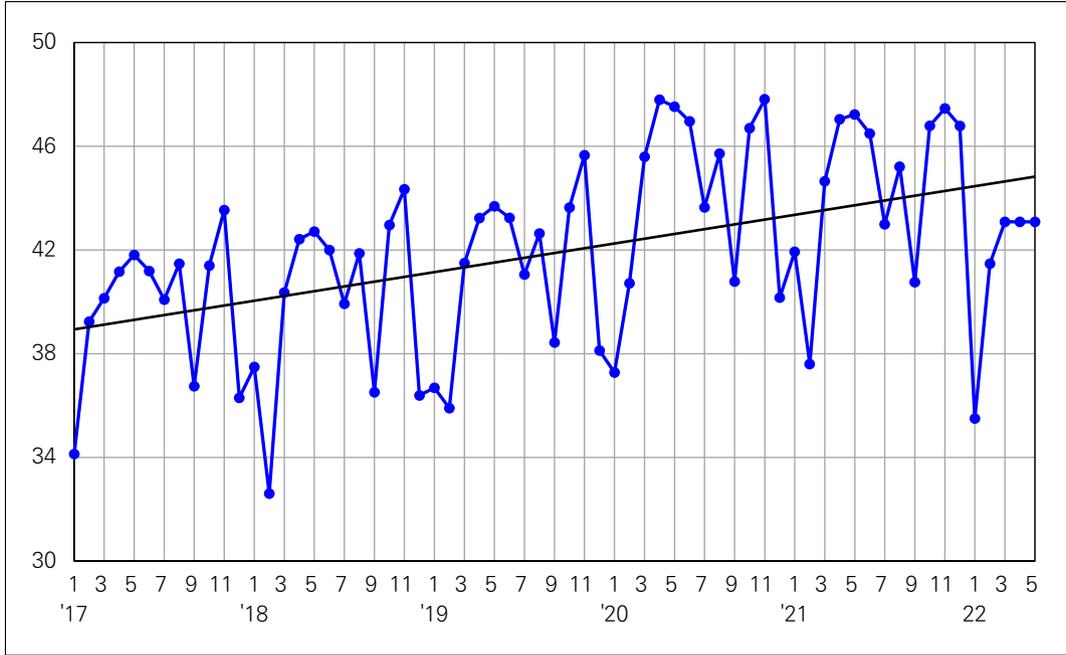
(단위 : 천 원)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그림 2] 임시·일용근로자의 상대임금 비율

(단위: %, 상용직 임금=100)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22년 5월 중소기업·대규모 사업체 임금은 전년동월대비 증가폭 확대

- 2022년 5월 중소기업·대규모 사업체 임금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4.1%, 8.1% 증가함.
 - 중소기업(1~299인)·대규모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임금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4.4%, 8.4% 증가함.
 -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임금상승폭이 크게 확대된 것은 제조업, 금융 및 보험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에서 특별급여 지급시기 변경 및 확대 등에 따라 특별급여가 증가(38.5%)한 데 기인함.
 - 중소기업·대규모 사업체의 비상용근로자 임금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2.5%, 3.1% 증가함.
- 2022년 1~5월 평균 중소·대규모 사업체의 임금상승률은 각각 4.5%, 10.0%임.
 - 전반적으로 제조업, 금융 및 보험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에서 성과급이 증가한 영향으로 보이며, 특히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상승폭 확대는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등에서 성과급 확대 등의 영향 때문임.

〈표 2〉 사업체 규모별 임금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 천 원, %)

		2020	2021	2021		2022	
				1~5월	5월	1~5월	5월
중소 규모	소 계	3,193 (1.7)	3,316 (3.8)	3,280 (3.5)	3,161 (3.9)	3,427 (4.5)	3,292 (4.1)
	상용임금총액	3,377 (1.2)	3,510 (3.9)	3,465 (3.6)	3,336 (4.1)	3,631 (4.8)	3,482 (4.4)
	정액급여	2,915 (2.6)	3,012 (3.4)	2,985 (3.0)	2,987 (3.5)	3,105 (4.0)	3,113 (4.2)
	초과급여	171 (-2.4)	176 (2.9)	173 (3.5)	184 (11.9)	182 (5.1)	188 (2.3)
	특별급여	292 (-9.4)	322 (10.4)	307 (9.2)	165 (7.3)	344 (12.1)	180 (8.9)
	비상용임금총액	1,615 (7.3)	1,671 (3.4)	1,655 (4.1)	1,680 (3.4)	1,697 (2.5)	1,722 (2.5)
대규모	소 계	5,242 (-2.1)	5,582 (6.5)	5,624 (5.1)	4,726 (3.9)	6,188 (10.0)	5,111 (8.1)
	상용임금총액	5,335 (-2.8)	5,687 (6.6)	5,724 (5.2)	4,807 (4.0)	6,320 (10.4)	5,213 (8.4)
	정액급여	3,847 (0.1)	3,973 (3.3)	3,942 (2.5)	3,894 (3.5)	4,111 (4.3)	4,078 (4.7)
	초과급여	340 (1.4)	357 (5.1)	349 (3.8)	367 (6.5)	366 (4.9)	379 (3.3)
	특별급여	1,149 (-12.5)	1,357 (18.1)	1,433 (13.8)	546 (6.5)	1,842 (28.5)	756 (38.5)
	비상용임금총액	2,029 (18.5)	2,214 (9.1)	2,162 (6.4)	2,032 (3.4)	2,292 (6.0)	2,096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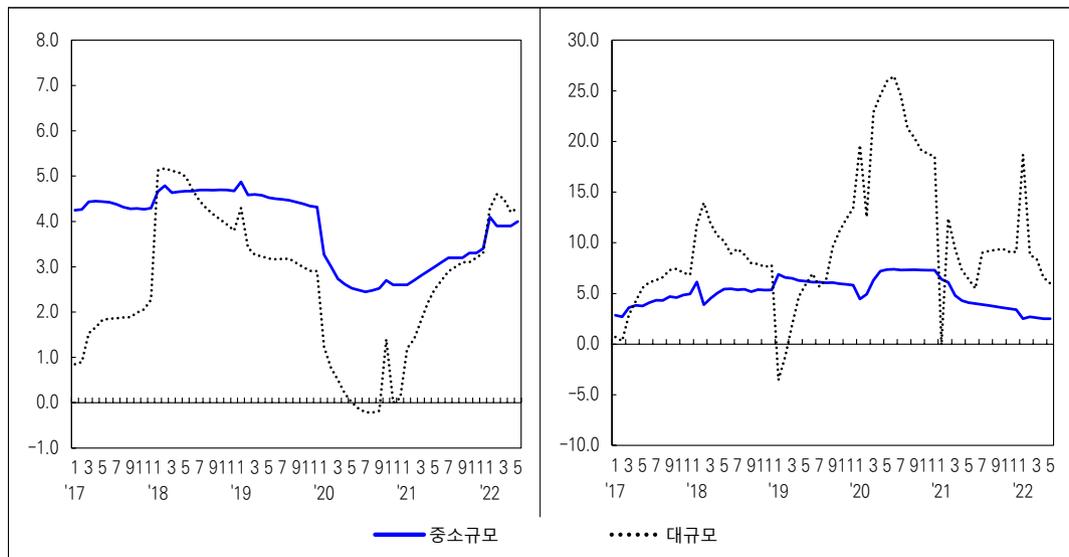
주 :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그림 3〉 사업체 규모별 상용근로자 정액급여 증가율(좌, 누계)과 비상용 임금총액 증가율(우, 누계) 추이

(단위 : %)



주 : 1인 기준 상용근로자의 정액급여와 비상용 임금총액의 월별 누계값 기준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22년 5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전산업에서 증가

- 2022년 5월 임금상승폭이 컸던 산업은 운수 및 창고업(7.6%), 제조업(7.4%), 숙박 및 음식점업(6.7%) 부문으로 6~7%대 임금상승률을 보인 반면, 부동산업(0.8%), 여가 관련 서비스업(1.4%), 교육서비스업(1.7%),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1.9%)은 평균상승률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2022년 5월 임금총액이 가장 많은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641만 원)이었으며, 다음으로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543만 6천 원),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488만 2천 원) 순인 가운데, 임금총액이 가장 낮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199만 원)으로 나타남.

〈표 3〉 산업별 임금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제10차 표준산업분류)

(단위: 천 원, %)

	2020	2021	2021		2022	
			1~5월	5월	1~5월	5월
전 산업	3,527	3,689 (4.6)	3,666 (4.0)	3,418 (4.0)	3,883 (5.9)	3,592 (5.1)
광업	4,325	4,415 (2.1)	4,323 (2.5)	4,366 (3.5)	4,531 (4.8)	4,537 (3.9)
제조업	3,990	4,239 (6.2)	4,212 (5.5)	3,767 (5.6)	4,570 (8.5)	4,044 (7.4)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6,733	6,753 (0.3)	6,154 (0.0)	5,337(-1.2)	6,289(2.2)	5,436 (1.9)
수도·하수·폐기물처리 및 원료재생업	3,888	4,094 (5.3)	3,950 (5.7)	3,829(5.6)	4,018(1.7)	3,936 (2.8)
건설업	3,032	3,106 (2.4)	3,070 (0.9)	3,012 (2.6)	3,196 (4.1)	3,125 (3.8)
도매 및 소매업	3,423	3,551 (3.7)	3,526 (3.5)	3,357 (4.3)	3,719 (5.5)	3,530 (5.2)
운수 및 창고업	3,530	3,795 (7.5)	3,610 (5.2)	3,372 (5.6)	3,837 (6.3)	3,630 (7.6)
숙박 및 음식점업	1,879	1,905 (1.4)	1,884 (0.1)	1,865 (2.1)	1,970 (4.6)	1,990 (6.7)
정보통신업	4,613	4,796 (4.0)	4,949 (4.5)	4,484 (2.4)	5,145 (4.0)	4,699 (4.8)
금융 및 보험업	6,526	6,963 (6.7)	7,344 (9.0)	6,097 (2.9)	7,898 (7.5)	6,410 (5.1)
부동산업	2,848	2,954 (3.7)	2,948 (5.2)	2,912 (8.4)	3,123 (5.9)	2,934 (0.8)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4,871	5,106 (4.8)	4,926 (2.3)	4,654 (3.1)	5,275 (7.1)	4,882 (4.9)
사업시설관리 및 임대서비스업	2,411	2,492 (3.4)	2,468 (3.1)	2,444 (3.6)	2,564 (3.9)	2,517 (3.0)
교육서비스업	3,366	3,355(-0.3)	3,423(-0.7)	3,160(-0.6)	3,483 (1.8)	3,212 (1.7)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942	3,014 (2.5)	2,981 (1.7)	2,952 (2.2)	3,098 (3.9)	3,045 (3.2)
여가 관련 서비스업	2,873	2,994 (4.2)	2,953 (3.7)	2,834 (5.7)	3,036 (2.8)	2,873 (1.4)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2,563	2,700 (5.4)	2,669 (5.7)	2,578 (4.8)	2,803 (5.0)	2,703 (4.9)

주 :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2020년 1월부터 제10차 표준산업분류를 반영하여 산업별 임금총액을 공표함에 따라 2020년 이전 자료와의 산업별 비교에 유의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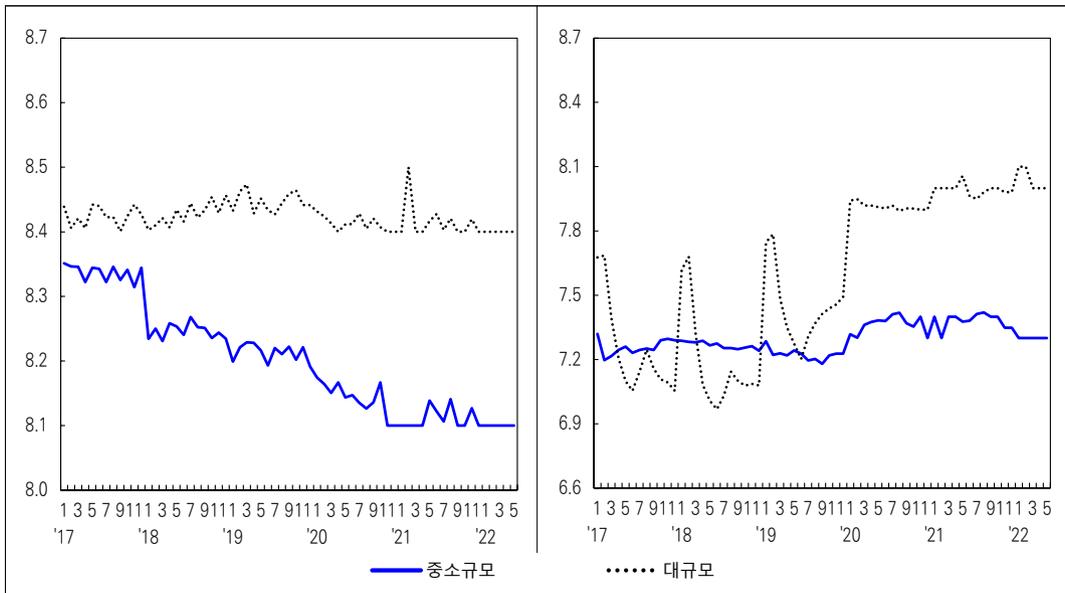
3)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22년 5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61.8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9.9시간 증가(월력상 근로일수는 전년동월대비 2일 증가)

- 2022년 5월 상용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168.5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1.0시간 증가하였고, 비상용근로자의 근로시간은 98.6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0시간 증가함.
 - 상용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월력상 근로일수 증감에 영향을 크게 받는 편으로, 5월 상용근로자의 근로시간 증가는 근로일수가 2일 증가한 영향이 큼.
 - 비상용근로자의 근로시간 증가는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에서 근로시간이 증가한 영향으로 보임.
- 중소기업·대규모 사업체 월평균 근로시간은 각각 161.6시간, 163.3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각각 10.0시간, 10.1시간 증가함.

[그림 4] 사업체 규모별 상용직 일일 평균 근로시간(좌, 누계)과 비상용 일일 평균 근로시간(우, 누계) 추이
(단위 : 시간/일)



주 : 일일 평균 근로시간은 상용직, 비상용직 사업체 규모별 전체 근로시간을 상용직, 비상용직 사업체 규모별 전체 근로일수로 나눈 것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표 4〉 사업체 규모별 근로시간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시간, %)

		2020	2021	2021		2022	
				1~5월	5월	1~5월	5월
중소 규모	전체 근로시간	160.1(-1.8)	160.3(0.1)	157.4(-0.1)	151.6(1.1)	156.3(-0.7)	161.6(6.6)
	상용 총근로시간	167.6(-2.1)	167.8(0.1)	164.4(-0.1)	158.2(1.2)	163.4(-0.6)	169.4(7.1)
	상용 소정실근로시간	159.8(-1.7)	160.1(0.2)	156.7(-0.1)	150.0(0.8)	155.8(-0.6)	161.5(7.7)
	상용 초과근로시간	7.8(-9.3)	7.7(-1.3)	7.7(1.3)	8.2(9.3)	7.7(0.0)	7.9(-3.7)
	비상용 근로시간	96.1(0.7)	97.4(1.4)	95.9(1.5)	96.3(1.7)	95.8(-0.1)	97.0(0.7)
대규모	전체 근로시간	162.8(-0.8)	162.3(-0.3)	160.6(0.1)	153.2(1.2)	157.9(-1.7)	163.3(6.6)
	상용 총근로시간	163.9(-1.4)	163.4(-0.3)	161.6(0.1)	154.2(1.2)	159.1(-1.5)	164.6(6.7)
	상용 소정실근로시간	153.0(-1.2)	152.3(-0.5)	150.6(0.1)	142.7(1.1)	148.1(-1.7)	153.3(7.4)
	상용 초과근로시간	10.9(-4.4)	11.1(1.8)	11.0(0.9)	11.5(3.6)	11.0(0.0)	11.3(-1.7)
	비상용 근로시간	125.2(19.4)	127.9(2.2)	127.2(1.8)	120.8(2.2)	123.3(-3.1)	125.1(3.6)

주: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22년 5월 산업별 월평균 근로시간은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2.2%)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증가

- 2022년 5월 월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긴 산업은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179.7 시간)이었고, 다음으로 광업(178.9시간), 제조업(175.0시간) 순으로 나타났으며, 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산업은 건설업(136.5시간)임.
- 월평균 근로시간이 크게 증가한 산업은 정보통신업(9.4%), 금융 및 보험업(9.3%)으로 나타남.

〈표 5〉 산업별 근로시간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시간, %)

	2020	2021	2021		2022	
			1~5월	5월	1~5월	5월
전 산업	160.6	160.7(0.1)	157.9(-0.1)	151.9(1.1)	156.6(-0.8)	161.8(6.5)
광업	181.2	179.9(-0.7)	179.3(1.3)	176.5(3.2)	172.9(-3.6)	178.9(1.4)
제조업	172.7	173.5(0.5)	171.4(0.8)	164.8(4.7)	169.1(-1.3)	175.0(6.2)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163.7	161.6(-1.3)	160.7(-0.3)	155.9(1.8)	155.9(-3.0)	152.4(-2.2)
수도·하수·폐기물처리 및 원료재생업	176.5	176.9(0.2)	173.9(0.4)	167.1(-0.8)	173.3(-0.3)	179.7(7.5)
건설업	136.9	135.9(-0.7)	133.6(-1.7)	129.3(-0.8)	132.8(-0.6)	136.5(5.6)
도매 및 소매업	163.8	163.8(0.0)	161.0(0.1)	155.2(0.4)	160.2(-0.5)	165.2(6.4)
운수 및 창고업	159.0	160.2(0.8)	157.0(0.1)	152.8(1.3)	157.8(0.5)	163.6(7.1)
숙박 및 음식점업	149.7	148.4(-0.9)	144.6(-2.2)	143.9(-0.1)	143.9(-0.5)	149.4(3.8)
정보통신업	163.8	164.1(0.2)	160.8(0.0)	151.7(0.7)	160.3(-0.3)	166.0(9.4)
금융 및 보험업	162.1	161.9(-0.1)	159.6(0.2)	149.4(0.1)	157.1(-1.6)	163.3(9.3)
부동산업	173.2	171.8(-0.8)	169.2(-0.5)	163.9(-1.5)	166.8(-1.4)	172.5(5.2)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61.7	161.6(-0.1)	159.0(-0.1)	149.9(0.4)	157.9(-0.7)	163.4(9.0)
사업시설관리 및 임대서비스업	161.7	162.1(0.2)	159.4(-0.1)	154.1(0.9)	157.9(-0.9)	163.2(5.9)
교육서비스업	136.6	137.2(0.4)	133.9(1.4)	127.2(-1.8)	133.4(-0.4)	138.1(8.6)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58.6	158.3(-0.2)	154.9(-0.3)	148.9(-0.5)	153.2(-1.1)	159.0(6.8)
여가 관련 서비스업	149.7	152.7(2.0)	148.1(0.7)	147.6(1.9)	148.7(0.4)	154.4(4.6)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160.3	162.4(1.3)	159.1(1.4)	153.1(-0.1)	158.5(-0.4)	163.5(6.8)

주: 1) 임금근로자 근로시간임.

2) 2020년 1월부터 제10차 표준산업분류를 반영하여 산업별 근로시간을 공표함에 따라 2020년 이전 자료와의 산업별 비교에 유의해야 함.

3)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김복순, 동향분석실 전문위원)

● 노사관계 및 노동정책 동향

◆ 노동쟁의 조정사건과 조정성립률

- 2022년 7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노동쟁의 관련 조정사건 건수는 26건
 - － 7월 노동쟁의 조정사건 접수 건수는 전년 동월 건수(18건)보다 8건 적은 수치임.
- 2022년 7월 조정성립률 4.0%
 - － 7월 조정성립률은 전년 동월 성립률 7.1%보다 3.1% 낮은 수치임.

〈표 1〉 2021년, 2022년 7월 조정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건수	조정성립			조정불성립			행정 지도	취하 철회	진행 중	조정 성립률
			소계 A	조정안 수락	합의 취하	소계 B	조정안 거부	조정 중지				
2022. 7	26	26	1	0	1	24	1	23	1	0	7	4.0
2021. 7	18	18	1	1	0	13	0	13	2	2	7	7.1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중재사건

- 2022년 7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노동쟁의 관련 중재사건 건수는 1건
 - － 7월 중재사건 접수 건수는 전년 동월 건수(0건)보다 1건 많은 수치임.
 - －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중재재정, 행정지도, 취하철회 건수는 2건임.

〈표 2〉 2021년, 2022년 7월 중재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건수				진행 중
		소계	중재재정	행정지도	취하철회	
2022. 7.	1	2	2	0	0	3
2021. 7.	0	2	2	0	0	2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심판사건

- 2022년 7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심판사건 건수는 196건
 - 7월 심판사건 접수 건수는 전년 동월(205건)보다 9건 적은 수치임.
 -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전부 및 일부 인정 비율이 28.0%(52건), 기각·각하·취하·화해 비율이 72.0%(134건)를 차지함.

〈표 3〉 2021년, 2022년 7월 심판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내역							진행 중
		계	전부 인정	일부 인정	기각	각하	취하	화해	
2022. 7	196	186	37	15	88	3	24	19	524
2021. 7	205	193	57	7	79	12	18	20	537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복수노조사건

- 2022년 7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복수노조사건 건수는 11건
 - 7월 복수노조사건¹⁾ 접수 건수는 전년 동월(4건)보다 5건 적은 수치임.
 - 전부 및 일부 인정 비율이 50.0%(2건), 기각·각하·취하·화해 비율이 50.0%(2건)를 차지함.

〈표 4〉 2021년, 2022년 7월 복수노조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내역							진행 중
		계	전부 인정	일부 인정	기각	각하	취하	화해	
2022. 7	9	4	2	0	2	0	0	0	11
2021. 7	4	5	2	0	0	1	2	0	10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2022년 6월 중앙노동위원회²⁾에 접수된 총 복수노조사건 건수는 363건
 - 6월 복수노조사건 접수 건수는 전년 동월(477건)보다 114건 적은 수치임.
 - 6월 복수노조사건 처리 건수(교섭요구 공고, 교섭대표 결정, 교섭단위 분리, 공정대표 의무)는 전년 동월(386건)보다 113건 적은 수치임.

1) 복수노조사건은 교섭요구, 교섭대표, 교섭단위, 공정대표 사건 등 복수노조제도와 관련된 사건 일체를 말함.
 2) 〈표 5〉의 접수건수는 이월사건이 포함된 건수임.

〈표 5〉 2021년, 2022년 6월 복수노조 관련 사건 처리 현황

	접수 건수	처리 내역				
		계	교섭요구 공고	교섭대표 결정	교섭단위 분리	공정대표 의무
2021	787	724	158	247	106	213
2021. 6	477	386	79	145	52	110
2022. 6	363	273	73	67	39	94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매월 『노동위원회 소식지』.

◆ 택배노조 · 대리점연합 ‘부속합의서’ 타결

- 7월 18일 민주노총 택배노조와 CJ 대한통운 대리점연합은 ‘부속합의서’ 협상 타결식을 진행했음.
- 지난 3월 2일 양측이 체결한 공동합의문에 따라 본회의와 실무회의를 각 4차례 진행한 끝에 부속합의서를 도출하는 데 성공했음.
- 택배노조는 대리점연합과 지난 3월 표준계약서 부속합의서를 개선하기로 합의하며 파업을 종료했음. 당시 택배노조는 기존 부속합의서 중 ‘당일 배송’, ‘주 6일제’, ‘터미널 도착 상품의 무조건 배송’ 내용이 과로사 해결을 막는 독소조항이라며 철회를 요구했음.
- 이번 부속합의서에는 주 6일제 업무 원칙하에 주 5일제 시범사업 실시, 개인별로 분류된 택배물품을 차량에 싣는 시간(인수시간) 제한 등을 담았음. 그동안 배송기사들은 인수시간 제한이 없어 길게는 10시간 가까이 택배물품을 차량에 옮겨야 했음.
- 양측은 인수시간을 하루에 3시간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웠음. 다만 설날과 추석연휴 등 특수기, 신선제품 배송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했음.
- 또 택배규격에서 벗어나는 이형상품 배송에 따른 추가 수수료가 발생할 경우 당일배송 원칙이 아닌, 위탁자가 마련한 별도 처리기준을 따르기로 합의했고, 보건상 조치를 위해 배송기사들이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하기로 했음. 건강검진 미실시 등에 대한 작업중지 조치도 할 수 있음.
- 이와 별도로 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한 법적 다툼은 현재진행형임.

◆ 현대자동차 노사 조인식

- 7월 21일 현대자동차와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임금협상 합의안에 서명하는 조인식을 가졌음.
- 임금협약안의 주요 내용은 △기본급 9만 8,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 수당 1만 원

- △경영성과급 300%+550만 원 △주식 20주(약 360만 원) △재래 상품권 25만 원 등임.
- 현대차 노사는 임금협약과 별도로 국내 전기차 전용공장 신설과 기존 노후 생산라인을 단계적으로 재건축하는 데도 합의했음.

◆ 보건의료노조, 산별중앙교섭 타결

- 8월 3일 보건의료노조는 국립중앙의료원 등 78개 의료기관과 7차 산별중앙교섭에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이견을 좁혀 합의를 했다고 밝혔음.
- 올해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에는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원자력의학원, 대한적십자사, 보훈병원 등 특수목적공공병원(38개) △경기도의료원, 인천의료원, 부산의료원 등 지방의료원(26개) △부평세림병원, 녹색병원, 인천사랑병원 등 민간중소병원(14개) 등 총 78개 의료기관이 참가했음.
- 주요 타결 내용을 살펴보면, △불법의료 근절에 관한 정부 지침 준수 △의료인력의 업무범위 준수 △야간근무 누적에 따른 유급수면휴가(슬리핑 오프) 부여 △갑작스런 근무표 변경을 금지하기 위해 대체간호사(플로팅 간호사) 시범 운영 △당일 근무표 변경 시 대체휴일 50% 가산 등임.
- 또한 의료기관평가인증 과정에서 고유업무 외 과도하고 부당한 지시 금지 및 인증평가 이후에도 적정인력 유지 안전을 비롯해 △직장 내 폭력 및 일터괴롭힘 행위자는 직위·직급을 막론하고 징계 조치 △유해·위험업무에 2인 이상 근무 원칙 △정해진 보호자 외의 병실 방문 금지 및 병문안 문화 개선 공동 캠페인 전개 등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뤄졌음.
- 이 밖에도 △건강검진시간 유급휴가와 유급현혈휴가 보장 △상시·지속업무의 직접고용 비정규직 계약만료 시 정규직 전환 △파견·용역업체와 계약 체결·갱신 시 간접고용 비정규직 단체협약 승계 원칙 △생활임금제도 도입 및 정착을 위한 노력 △상집간부 연속 2일 유급교육시간 보장 △환자·보호자 권리 보장 등도 타결됐음.
- 아울러 △9.2 노정합의 이행과 감염병 대응과 일상적 진료체계 회복 지원 △의사인력 확충과 의료기관의 공공적 발전 지원 등 대정부 요구 해결을 위한 공동 노력 △특성별 의료기관의 발전을 위해 노사 공동 정책협의 추진 등에 대한 안전도 합의 내용에 포함됐음.
- 특히 총액 7.6% 임금인상 요구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최전선에서 희생·헌신한 보건의료 노동자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마련됐음. 하지만 의료기관 특성별 편차와 특성별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임금인상은 산별중앙교섭에서 다루지 않고, 특성교섭 및 현장교섭으로 위임하여 다루기로 합의했음.

◆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노사 임금협약 체결

- 8월 9일 삼성전자 내 4개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노조 공동교섭단은 최근 조합원 투표를 거쳐 회사와 잠정 합의한 '2021~22년도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을 의결했음.
-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해 10월 2021년 임금교섭을 시작한 이후 교섭이 길어지자 2021년과 2022년을 통합해 협상을 벌여 왔음.
- 임금협상의 핵심인 임금인상률은 기존에 삼성전자 노사협의회가 정한 수준을 그대로 반영하기로 했음.
- 노조와 별개로 사측 위원과 근로자측 위원으로 이뤄진 협의기구인 노사협의회는 지난해 7.5%(기본인상률 4.5%, 성과인상률 평균 3.0%), 올해 9%(기본인상률 5%, 성과인상률 평균 4%)의 임금인상을 결정했음.
- 이 밖에 최종 합의안에는 명절 연휴 기간 출근자에게 지급하는 '명절배려금' 지급 일수를 기존 3일에서 4일로 늘리고 올해 초 신설된 '재충전휴가 3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올해에 한해 연차수당을 보상해 준다는 내용이 담겼음.
- 또한 임금피크제와 포괄임금제 개선을 위한 노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음.

◆ CJ대한통운 하청 노사 첫 표준단체협 체결

- 8월 9일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택배산업본부와 씨제이대한통운 대리점연합은 '표준단체협약 체결식'을 열었음.
- 이번 단체협약은 강원 동해와 북평 대리점 두 곳(조합원 20여 명)의 노동조건과 노조활동 보장에 관한 내용을 합의한 것에 불과하지만, 노사 모두 큰 의미를 부여했음.
- 이번 단체협약에는 조합활동, 위수탁계약, 집배송작업기준, 휴일·휴가, 안전·보건, 복지, 쟁의행위,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음.
- 택배산업 표준인 주 6일 배송원칙하에서 사회적 합의에 따라 주 5일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고, 집배송 작업시간은 주 60시간을 기준으로 서브터미널에서 택배상품을 인수하는 시간을 하루 3시간으로 제한했음.
- 관공서 휴일과 택배의 날을 휴무로 정하고, 경조사 휴가 사용 때 대체배송 비용은 대리점이 부담하기로 했음. 노조활동 보장을 위해 근로시간면제자, 노조사무실, 조합비공제 방법 등에 대한 합의도 이뤄졌음. 수수료는 대리점 사정에 맞춰 결정한다는 원칙이 담겼음. 이 표준단체협약을 바탕으로 택배산업본부가 교섭대표노조인 대리점 50여 곳과도 단체협약을 체결할 방침임.

- 한국노총 택배산업본부는 2020년 12월 ‘전국택배연합’이라는 이름으로 노조설립신고증을 받은 뒤 현재 조합원이 600여 명임. 이번 단협은 한국노총 택배산업본부 소속 강원지역 두 곳 대리점에만 적용됨.
- 씨제이대한통운 소속 택배기사가 2,500여 명인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의 경우, 2016년 설립됐지만 고용노동부의 설립신고증 교부 지연으로 2017년 11월에서야 ‘법 내노조’가 됐음.

◆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제명’ 결정

- 7월 22일 한국노총은 건설산업노조 제명에 대한 임시대의원대회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 이번 임시대의원대회 투표는 7월 21~22일 이틀에 걸쳐 모바일로 진행됐음. 재적 대의원 929명 중 790명(85.04%)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742명(93.92%), 반대 48명(6.08%)으로 건설산업노조의 제명 안건이 가결되었음.
- 지난 7월 13일 한국노총은 제433차 회원조합대표자회의를 열고 건설산업노조를 한국노총 회원조합에서 제명하는 안건을 임시대의원대회 투표에 붙이기로 심의·의결한 바 있음.
- 한국노총 상별위원회는 건설산업노조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조합비 횡령 묵인과 방조 및 비정상적 회계운영 △조직적인 부정선거 지시 △한국노총의 정상화 요구 불이행 △비민주적 노조운영 등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음.

◆ 지방공기업 노조 85% “지역 노·사·정 거버넌스 필요”

- 7월 22일 한국노총 공공연맹(한국공공노동조합연맹)은 지역공공정책 결정 거버넌스 구축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소속 지방공기업 노조 35곳 간부 186명의 인식조사 결과를 공개했음.
- 조사 결과, 노조간부 대부분이 소속 기관에 운영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인식했음.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긍정응답이 84.7%로 부정응답 5.4%를 압도했음.
- 노조간부들은 노동조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주체로 지방자치단체장(49.5%)을 꼽았고 소속 기관장(25.3%)과 행정안전부(22%)가 뒤를 이었음.
- 거버넌스를 구축할 때 참여해야 하는 주체(중복응답)로 해당기관 노조(72%)·지자체장(66.7%)·소속 기관장(64%)을 꼽았음.
- 거버넌스 논의 주제는 주로 노동조건 향상에 집중됐음. 노조간부들은 1순위로 노동조건 개선(62.69%)을 가장 많이 꼽았음. 지방공기업 예산확보 방안 마련(21.51%), 지방공기업 역할과 기능 개선(11.29%), 지방공기업 평가제도 개선 방안 마련(10.22%)이 뒤를 이었음.

- 지역 내 신규 공공서비스 공급방안 마련(3.08%), 지역 내 취약노동자 권익보호와 지원방안(2.69%), 지방공기업 사회적 책임 실천방안 마련(0.54%)으로, 공공부문 역할과 관련한 주제는 노동조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았음.

◆ 대법원,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정규직 지위’ 인정

- 7월 28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이흥구 대법관)는 포스코의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59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2건에서 정년이 지난 4명을 제외한 나머지 노동자들에 대해 원고 승소인 원심 판결을 확정했음.
- 원고들은 주로 1990년대 하청업체에 입사해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일했고 쇳물로 얇고 긴 철판을 만드는 ‘압연공정’에서 크레인으로 코일을 운반하는 업무를 했음.
- 원고들은 자신들의 고용형태가 불법파견이라며 포스코 소속 노동자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2011년(15명)과 2016년(44명)에 제기했음.
- 2건 모두 1심 법원은 원고들 청구를 기각했음. 하지만 2심에서 원고 승소로 뒤집혔음. 2심 법원은 하청노동자들의 코일 운반 업무는 압연공정에서 필수적인 부분이고, 포스코 정규직들의 업무와도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판단했음. 또 포스코가 작업표준서, 전산관리 시스템을 통해 하청노동자들에게 구속력이 있는 업무 지시를 했다고 봤음.
-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수긍했음. 다만 정년이 지난 4명은 포스코 노동자임을 확인할 이익이 없다며 각하로 결론 냈음.
- 파견법은 2년 넘게 계속 파견노동자를 사용하는 경우 원청이 파견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원청의 지휘·명령을 받아 원청 소속 정규직과 함께 유사한 업무를 하는데도 기한 제한 없이 비정규직으로 쓰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임.

◆ 철강노동자 3명 중 1명 “최근 1년 새 사고당할 뻔”

- 8월 1일 금속노조 노동연구원은 철강업종 노동자 4,76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하였음.
- 최근 1년 동안 작업 중 사고로 다칠 뻔한 적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 중 33%가 “그렇다”고 답했음.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작업 중 아차사고³⁾를 경험한 노동자가 758명으로 가장 많았고, 오후(오후 2시~오후 10시)와 오전(오전 6시~오후 2시)이 각각 663명, 546

3) 건설공사 중 사고가 발생할 뻔하였으나, 직접적으로 인적·물적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은 사고로서 크고 작은 건설 사고의 전조증상을 뜻함.

명으로 뒤를 이었음.

- 같은 기간 실제 다친 경험을 묻자, 응답자 4,672명 중 15.6%가 있다고 답했음.
- 철강업종 노동자는 인력난을 호소했음.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부서(혹은 팀)의 인원이 적절한 수준인지” 묻자, 응답자 63.7%가 부족하다고 응답했음. 적절하다고 답한 이는 35.1%였음.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2인1조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 지켜지지 않는다는 응답이 33.8%로 적지 않았음.

◆ 중대재해 44%, 사망사고 난 기업에서 ‘재발’

- 8월 8일 고용노동부는 “상반기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50명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개선 실태 확인을 위한 기획감독을 한다”고 밝혔음.
- 올해 1~6월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은 530곳임. 이들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점검·감독을 한 결과 법 위반 건수가 일반 사업장보다 월등히 많았음.
- 530개 기업 중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을 위반한 곳은 487곳(91.9%)이나 됐음. 상반기 점검·감독한 9,506개 기업의 평균 법 위반율(46.5%)의 2배 가까이 되었음.
- 1월부터 7월 사이 50명 이상 사업장·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건설현장에서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는 138건 발생했음. 이 중 44.2%(61건)는 최근 5년간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서 났음.
- 7월에는 50명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30건 발생해 노동자 30명이 목숨을 잃었음. 1년 전보다 18명이나 증가했음. 특히 30건 중 15건은 5년 내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기업에서 났음.
- 고용부는 중대재해법 적용 기업에 소속된 모든 사업장 중 일부 사업장을 선정해 불시에 안전관리 상태를 확인하는 기획감독을 8월 중 실시할 예정임.
- 중대재해 발생사업장에 대해서는 중대재해 발생원인이 해소됐는지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이행 여부, 안전보건진단개선 계획 수립·시행여부를 집중점검하기로 함.

◆ 휴게시설 미설치 사업장 8월 18일부터 과태료 처분

- 8월 9일 고용노동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산재 위험이 높은 업종에서 상시노동자가 500명 이상인 대규모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를 2명 이상 선임해야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음.
- 개정안에 따라 8월 18일부터 상시노동자가 20명 이상인 사업장과 공사금액 20억 원 이상

- 인 공사현장은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함.
- 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아파트경비원, 건물경비원과 청소·환경미화원 등 7개 직종 노동자를 2명 이상 사용하는 10명 이상 사업장도 적용 대상임.
 - 이들 사업장이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한 번만 적발돼도 과태료 1,500만 원을 부과할 예정임. 당초 1차 적발 500만 원, 2차 적발 1,000만 원, 3차 적발 1,500만 원을 부과하려 했으나 입법예고 후 논의과정에서 처벌을 강화하는 것으로 변경했음.
 - 휴게시설을 부실하게 운영하는 등 설치·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1차 적발 50만 원, 2차 적발 250만 원, 3차 적발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 다만, 50명 미만 사업장은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해 1년 뒤인 내년 8월 18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함.
 - 또한 사고재해율·사망만인율이 높은 업종인 섬유제품 제조업,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재생업, 운수 및 창고업에서 상시노동자가 500명 이상이면 안전관리자를 2명 이상 선임해야 함. 기존에는 1천 명 이상이어야 2명 이상 선임하도록 했음.
 - 이 밖에도 직업성 질병 모니터링 사업을 지속하도록 시행령에 사업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이 포함됐음.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없는 시·군지역 노동자가 일반검진기관에서 야간작업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존속하기로 했음.

◆ 코로나 실적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5배'

- 7월 24일 직장갑질119와 공공상생연대기금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6월 10~16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와 직장생활 변화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음.
- 코로나19 확산 이후 실적을 경험한 노동자(15.4%) 가운데 비정규직(29.5%)이 정규직(6.0%)의 무려 5배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소득감소를 경험한 노동자는 10명 중 3명(28.4%)이었는데 비정규직(50.5%)이 정규직(13.7%)의 4배가량 되었음. 소득감소 경험은 월 150만 원 미만(50.9%)과 5명 미만 사업장(40.5%)에 집중됐음.
- 확진 시 근무처리에 대해 물은 결과, 추가적 유급휴가·휴업(34.0%), 무급휴가·휴직(21.2%), 재택근무(19.3%) 순이었음. 그런데 유급휴가 사용 비율은 정규직(45.0%)이 비정규직(15.3%)의 약 3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반면, 무급휴가를 쓴 비율에서는 비정규직(37.4%)이 정규직(11.7%)의 3배를 넘었으며, 코로

- 나 감염으로 소득이 줄었다는 응답은 31.4%였는데 비정규직(52.7%)이 정규직(18.9%)의 3배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지난 2주간 우울감을 묻는 질문에 정규직(40.7%)에 비해 비정규직(54.7%)이 14%포인트 높다고 응답했음. 수면장애 경험은 정규직 51.8%, 비정규직 62.2%였음. 자학은 정규직 32.0%, 비정규직 44.5%로 나타났음. 자살 생각은 정규직 14.0%, 비정규직 28.0%로 비정규 노동자의 정신 건강 이상이 정규직에 비해 훨씬 심각했음.

(조규준,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